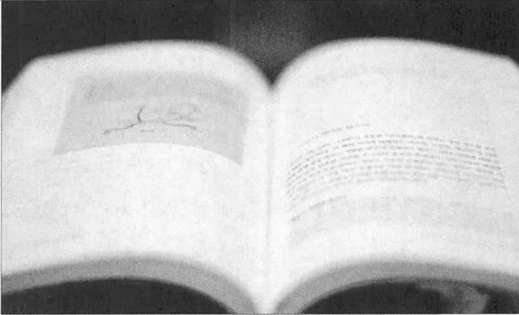


대립 넘어 화해와 공존 모색해야

전자책-종이책의 대립적 논의구도 벗어나야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종이책의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 그보다는 종이책의 아날로그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매체형식을 찾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다. 그것은 형식은 디지털이고 내용은 아날로그라는 땀질식 사유를 넘어서서, 디지털적 가치와 아날로그적 가치가 서로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놀라운 형식을 찾는 일이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이다. 디지털 덕분에 아날로그도 덩달아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것의 가장 넓은 쓰임새는 인터넷 이후는 디지털이고 안티 혹은 인터넷 이전은 아날로그라는 식이다. 신세대와 구세대, 도구와 정신, 빠름과 느림, 적응과 뒤처짐 등의 대립도 같은 문맥에서 사용된다. 아톰과 비트,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구분하는 패러다임적 용어인 디지털-아날로그가 삶과 문화 전반에 대한 술어로 사용되면서 '모호하면서도 뚜렷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출판계 논의 '공전' 하고 있어

출판계도 마찬가지다. 작년까지 논란이 됐던 '종이책 vs 전자책' 논쟁은 사실 그 안쪽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정면으로 맞붙은 대립전이었다. 종이책 종말론과 전자책은 책이 아니라는 극단적 주장이 치열하게 맞선 이 논쟁은 "양자 모두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제대로 해야 살아남을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끼어 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시장 및 여론조사에서 종이책의 견제와 전망이 입증되면서 수그러들었다.

당시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절에서 육식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책의 '물성'을 갖추지 못한 e-북은 결코 책이 될 수 없다"는 강경론을 폈다. 북디자이너 정병규씨(정병규디자인 대표)도 비슷한 견해였다. "책과 전자콘텐츠는 범주가 다른 별종이다. 단지 출판사가 이 둘 모두에 관여하기 때문에 '책'의

개념으로 묶일 뿐이다"는 범주론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책의 매체경쟁력을 별 근거 없이 낙관하거나 아니면 방관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문제설정을 제안한다.

"책이 읽기의 유일한 매체는 아니다. '종이책'이란 형태 외에 다른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모니터와 PDA 단말기가 종이의 '물성'과 책의 '정신'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는 디지털 매체가 종이책의 아날로그적 가치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발전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적극모색론'이다. 북토피아의 김혜경 대표는 '현실론'에 가깝다. "종이책과 전자책 단말기에 적합한 콘텐츠가 따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며 "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합한 '그릇'에 분배하는 일이 현실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각각 전문화, 분업화를 지향함으로써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자는 이야기다.

종이의 물성을 담아내는 디지털 '형식' 찾아야

하지만 이것도 반론을 불러일으킨다. 월간《크리에이트》편집장 광동훈씨는 "종이책과 전자책을 매체나 도구의 범위에서만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컴퓨터 글쓰기 및 웹상에서 벌어지는 지식의 반복재생산은 총체성과 연속성,

그리고 완결성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글쓰기를 무섭게 위협하고 있다"며 '글쓰기'와 그것이 감당하던 생산 메커니즘 내부의 지각변동을 지적한다.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문자를 낫설어하는 n세대의 성장을 더한다면, '단절'과 '조합'을 지향하고 정보를 하나의 자산가치로 이해하는 디지털 글쓰기의 '나쁜' 경제관념이 전자책과 종이책을 똑같이 규격화시키는 쪽으로 급물살을 타리라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광동훈씨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눈길을 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포장이자 아날로그의 아우라를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한 것일까? 그건 결코 아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진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소리들은 또 다시 우리가 사는 새로운 환경을 구성하고, 그것은 디지털만이 지닌 새로운 아우라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아우라는 나뭇잎의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기서 '아우라'라는 은유는 디지털이 구현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가치, 즉 삶의 장면들이 서로 연결되고 지속되는 또 다른 세계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제각기 자신의 살길을 찾아나서기 보다는 서로 '대화'해 공통의 형식을 찾아낼 것을 촉구하는 말이다. - 강성민 기자